

# 디지털 융복합시대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반응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 학생을 중심으로

박영숙\*, 김정희\*\*

한국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Daily Hassles, Self-Efficacy, and Stress Responses of Adult Learners of Distance Education in Digital Convergence Era -Based on RN-BSN Students

Young-Suk Park\*, Jeong-Hee Kim\*\*

Dep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융복합 시대의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로서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RN-BSN 학위과정 학생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반응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자료는 일 국립원격대학의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의 직업을 가진 여성 간호사 229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일상생활스트레스의 하부 영역들 중 당면과제 영역이 대인관계 영역 보다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고, 당면과제 영역에서는 학업문제가,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가 각각 가장 높았다. 자기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 업무부담, 직업만족과 일상생활스트레스의 가치관문제가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스트레스반응의 총변량 44.2%를 설명하였으며 일상생활스트레스의 가치관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디지털 융복합 시대의 직업을 가진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원격교육지원 정책과 전략들이 필요하다.

**주제어** : 디지털 융 복합 시대, 원격교육,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반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daily hassles, self-efficacy, and stress responses of RN-BSN (Registered Nurses-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students in juggling both their jobs and learning as an adult learner of distance education in digital convergence era.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from 229 nurses in a RN-BSN course of an open university from October to November, 2013. The mean score of facing task dimension was much higher than the interpersonal dimension score among daily hassles. The academic problem of the facing task and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interpersonal were the highest respectively. The mean score of self-efficacy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perceived health status, workload, occupation satisfaction, and values problem of daily hassles explained 44.2% of stress responses and values problem was the main factor influencing stress responses. The distance educ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were required to manage their stress for the adult learners of distance education in digital convergence era.

**Key Words** : Digital Convergence Era, Distance Education, Daily Hassles, Self-Efficacy, Stress Response

Received 8 July 2015, Revised 24 August 2015

Accepted 20 Sept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Kim, Jeong-Hee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snukjh@jeju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가속화되는 세계화 및 무한경쟁, 기업의 구조조정, 새로운 경영방식 및 새로운 첨단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직업을 가진 성인들은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 및 기술 습득과 창출 등 지속적인 자기역량강화를 요구 받고 있다[1]. 특히 많은 직업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TV, 컴퓨터,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원격대학 등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간호사들 또한 정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원격대학 등 계속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환자간호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 자신들의 간호역량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는 간호사의 계속 교육 및 교육수준의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응이라 할 수 있다. 즉 ‘간호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간호사의 높은 교육수준이 환자의 결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들을 근거로, 학사학위 이상 간호사를 2008년 기준 약 50%에서 2020년까지 80%로 증가시켜 전 세계 간호사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였다[2]. 이는 구체적으로 최근 미국의 뉴욕, LA, 시카고 등에서 학사이상의 학위가 없는 간호사는 더 이상 승진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취업자체가 어려워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3].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대학의 4년제로의 일원화 정책이 향후 국내 간호사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바[4], 간호사들의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계속 교육이나 교육수준 향상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높은 교육수준과 간호역량을 갖춘 간호사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국내외의 많은 간호사들이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Registered Nurse -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Course [RN-BSN])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5,6,7,8,9] 학위과정의 중도에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10]의 간호학과 학생의 학업지속 현황분석에 따르면, 학업완수(졸업)하는 경우는 총 2,434

명 중 55%(1,339명)이었으며, 학업지연(재학) 10.7%(261명), 학업중단 34.3% (834명)로 약 45%의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8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Altmann[5]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계속교육과정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제약, 가족, 적절한 학습지원 부재, 상충되는 우선순위 등을 보고하였으며,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인 RN-BSN과정의 간호사들이 학위과정을 완수하지 못하는 원인에는 학업, 고용주, 개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는 일-삶의 균형과 경제적 문제들인 것으로 지적된다[8].

최근 국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31.2%이며[11], 간호사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질병이나 상해관련 결근율이 높고, 과반수 이상(55.8%)이 간호사의 업무를 스트레스가 매우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2]. 이러한 직업적 상황에서 실제 간호사들이 일과 자신의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직장에서의 업무 뿐 아니라 이미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부담이 가중된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지속적인 일상생활스트레스 증가는 학업과정이나 결과는 물론 건강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eLongis, Folkman과 Lazarus[13]는 일상생활스트레스가 감기, 인후통, 두통, 요통 같은 건강문제의 발생이나 기분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경우라도 사회 심리적 자원이 적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때 질환이나 기분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비록 낮은 수준이더라도 장기간 지속되거나 사회 심리적 자원이 적은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업이 있는 간호사가 최소 1~2년 이상 RN-BSN의 학업과정을 수행하는 경우, 이들의 지속적인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예방적 접근과, 특히 사회 심리적 자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난 20여년 동안 자기효능감은 교육분야에서 학생들의 동기와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예측요인으로서 학생들의 활동선택, 노력, 지속과 정서적 반응 같은 일반적인 동기성과들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동시타당도와 변

별타당도가 검증되었고, 학생들의 성취맥락에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들에 민감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과정과 상호작용하고 이들의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4].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학사학위과정이나 학위취득은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고[7,8,9] 자기효능감은 간호사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평가된다[15]. Bandura[16]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긍정적인 인지능으로 스트레스요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격교육 성인학습자인 RN-BSN 학위과정 간호사들의 경우, 자기효능감은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지속적인 학업 수행과 성취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동안 경험하는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더구나 현재 국내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많은 대학들과 교육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격교육의 성장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원격교육 성인학습자인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지속적인 학업 수행을 지지하는데 있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원격대학의 RN-BSN 학위과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반응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간호사의 학업수행과정을 지지하고 이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RN-BSN과정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반응 정도를 파악한다.
- RN-BSN과정 간호사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반응의 특성을 파악한다.
- RN-BSN과정 간호사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반응간의 상관성을 확인한다.
- RN-BSN과정 간호사의 일반적 및 학습관련 특성,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RN-BSN과정 간호사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반응 특성을 파악하고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국립원격대학 간호학사 특별 편입과정의 직업을 가진 여성 간호사 229명으로, 일 국립원격대학의 전국 13개 지역 캠퍼스 중 4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오프라인 수업(off-line class)에 참여한 학생들 중 본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간호사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설문지와는 별도로 서면동의를 작성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당일에 수거하였고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크기는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효과크기 0.25로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197명으로 예측되었다.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총 244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등을 제외한 229부(93.9%)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관련 특성은 연령과 결혼유무, 경제적 상태, 종교유무, 업무부담 정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학습매체방법과 매체강의 만족도 등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중 업무부담 정도와 직업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매체강의만족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는 각 1문항씩이었다.

#### 2.3.1 일상생활스트레스

일상생활스트레스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스트레스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의 경험빈도와 각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각되었는지의

중요도를 측정한 Kim, Chon과 Yi[17]가 개발한 50문항을 본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Kim 등[17]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도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나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원격대학생들과 어떤 측면에서 구분되는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비교할 목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성인 직장인에 맞게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에 대해 '전혀 없었다' 0점부터 '항상 있었다' 3점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이성, 친구, 가족, 교수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 영역과 학업, 경제, 장래, 가치관 문제 등 당면과제 영역,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별 스트레스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7]의 연구에서 각 하부 영역별 Cronbach's  $\alpha$ 는 .75~.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4~.95이었다.

###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 자신의 판단으로[18], Sherer와 Adams[19]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전혀 아니다' 0점부터 '매우 그렇다' 4까지의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a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0이었고, Shin[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 2.3.3 스트레스반응

스트레스반응은 스트레스사건이나 요인의 자극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Koh, Park과 Kim[21]이 개발한 전체 39문항의 스트레스반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감정, 신체, 인지, 행동 영역의 반응들을 포함하는 스트레스반응 척도로서 스트레스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된다[21]. 이는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 등 7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0점부터 '아주 그렇다' 4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

레스반응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전체문항의 Cronbach's  $\alpha$ =.97, 하위척도는 .76~.91, 본 연구에서는 전체문항 .97, 하위영역은 .77~.91이었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목적, 연구 윤리와 연구 과정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연구 참여와 자료 사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참여자들의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자료 사용 여부에 대해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주었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및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반응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 및 학업 관련 등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반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반응의 차이 검정은 ANOVA와 Kruskal-Wallis H 검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스트레스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진적 단계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반응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35세로, 20대가 143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자가 154명(67.2%)이었다. 경제 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62명(70.7%),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32명(57.6%)이었다. 업무부담은 '높음'이 126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81명(35.4%),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의 경우가 124명(54.1%), 학습매체방법은 '컴퓨터' 사용자가 131명(57.2%), 매체강의 만족도는 '보

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131명(57.2%)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반응의 차이 분석 결과, 연령과 경제상태, 종교 유무, 학습매체방법, 매체강의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업무 부담( $p=.000$ )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 $p=.000$ ), 지각된 건강상태( $p=.000$ )에 따른 스트레스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업무 부담감이 높거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스트레스반응 정도가 높았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Stress Respons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9)

Characteristics		n(%)	Stress Responses	F(p)
			M(SD)	
Age (yr)	-29	143(62.4)	38.17(25.15)	2.53 (.082)
	30-39	67(29.3)	30.00(25.96)	
	40-	19( 8.3)	25.00(22.39)	
Married status	Yes	75(32.8)	27.33(24.67)	6.63 (.011)
	No	154(67.2)	36.41(25.22)	
Economic status	Good	45(19.7)	31.24(25.36)	3.161 (.206)
	Middle	162(70.7)	32.39(23.54)	
	Bad	22( 9.6)	45.64(34.74)	
Religion	Yes	132(57.6)	32.80(25.32)	0.20 (.656)
	No	97(42.4)	34.31(25.49)	
Workload	Low	22( 9.6)	21.05(16.44)	27.94 <sup>1)</sup> (.000)***
	Middle	81(35.4)	24.95(21.58)	
	High	126(55.0)	41.06(26.39)	
Occupation satisfaction	Satisfied	75(32.8)	22.48(18.89)	30.75 <sup>1)</sup> (.000)***
	Fair	73(31.9)	32.15(22.54)	
	Unsatisfied	81(35.4)	44.74(28.29)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59(25.8)	20.25(17.26)	49.52 <sup>1)</sup> (.000)***
	Fair	124(54.1)	30.97(21.02)	
	Poor	46(20.1)	57.00(29.18)	
Learning method	TV/audio	3( 5.7)	22.33(18.77)	0.48 (.617)
	Computer	131(57.2)	32.99(26.15)	
	Mobile	85(37.1)	35.46(23.09)	
Satisfaction for media lecture	Satisfied	85(37.1)	28.69(22.42)	4.18 <sup>1)</sup> (.124)
	Fair	131(57.2)	35.87(25.69)	
	Unsatisfied	13( 5.7)	39.92(35.67)	

<sup>1)</sup>Kruskal-Wallis H test; \*\*\* p < 0.001

### 3.2 대상자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반응

본 연구대상자인 원격대학 학생인 간호사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총점은 평균은 39.47점이었으며, 하부 영역별로는 대인관계 영역이 평균 12.89점, 당면과제 영역은 평균 26.58점이었다. 일상생활스트레스 유형간 비교를 위해

문항 평균을 분석한 결과, 당면과제 영역이 0.98점으로 대인관계 영역의 0.56점 보다 1.75배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스트레스의 유형별로는 당면과제 영역의 학업문제가 1.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치관문제 0.96점, 장래문제 0.95점 순으로 높았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가 0.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범위는 7~54점, 평균은 37.24점이었으며, 문항 평균은 2.46점이었다. 스트레스반응의 총점 평균은 33.44점이었으며, 하부영역의 문항평균에서 피로가 1.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좌절 1.03점, 분노 0.85점, 긴장 0.8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s of Daily Hassles, Self-Efficacy, and Stress Responses (N=229)

Variables (Number of items)	M(SD)	Range	Mean of items
Daily hassles(50)	39.47(18.31)	0-98	0.79
Interpersonal dimension(23)	12.89(8.88)	0-40	0.56
Romantic relationship(6)	3.42(3.07)	0-13	0.57
Friend relationship(5)	2.71(2.26)	0-9	0.54
Family relationship(6)	3.73(3.25)	0-17	0.62
Professor relationship(6)	3.03(2.68)	0-12	0.51
Facing task dimension(27)	26.58(11.13)	0-76	0.98
Academic problem(7)	9.06(3.76)	0-21	1.29
Economic problem(7)	5.09(3.80)	0-21	0.73
Future problem(8)	7.62(3.78)	0-22	0.95
Values problem(5)	4.81(2.76)	0-14	0.96
Self-efficacy(14)	37.24(6.14)	7-54	2.46
Stress responses(39)	33.44(25.35)	0-126	0.86
Fatigue(5)	6.33(3.75)	0-18	1.27
Tension(6)	5.01(4.08)	0-21	0.84
Somatization(3)	2.12(2.29)	0-10	0.71
Frustration(7)	7.21(6.04)	0-26	1.03
Anger(6)	5.11(4.45)	0-19	0.85
Depression(8)	6.05(5.41)	0-29	0.76
Aggression(4)	1.61(2.56)	0-13	0.40

### 3.3 대상자의 특성, 일상생활스트레스,

####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반응간의 상관성

원격대학 학생인 간호사의 스트레스 반응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r=-.36$ ,  $r=-.48$ ), 업무 부담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r=.32$ ). 즉 본 연구대상자들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스트레스반응 점수가 높았으며, 업무 부담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반응 점수 또한 높았다.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반응과의 관계는 교수

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부유형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 $r=.17\sim.52$ )을 보여 이들 하부 유형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반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대상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r=.19$ )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일상생활스트레스의 이성관계, 교수와의 관계, 경제문제를 제외한 모든 하부유형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고( $r=-.16\sim-.37$ ), 스트레스반응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r=-.24$ ).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반응 점수가 높았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Daily Hassles, Self-Efficacy, and Stress Responses (N=229)

Variables	Stress responses	Self-efficacy
	$r(p)$	$r(p)$
General characteristics		
Workload	.32(.000)***	-.13(.054)
Occupation satisfaction	-.36(.000)***	.19(.004)**
Perceived health status	-.48(.000)***	.10(.119)
Daily hassles (total)	.38(.000)***	-.27(.000)***
Interpersonal dimension	.26(.000)***	-.16(.019)*
Romantic relationship	.17(.010)*	-.06(.406)
Friend relationship	.25(.000)***	-.18(.007)**
Family relationship	.29(.000)***	-.24(.000)***
Professor relationship	.09(.155)	-.01(.849)
Facing task dimension	.42(.000)***	-.32(.000)***
Academic problem	.34(.000)***	-.31(.000)***
Economic problem	.20(.002)**	-.13(.056)
Future problem	.31(.000)***	-.24(.000)***
Values problem	.52(.000)***	-.37(.000)***
Self-efficacy	-.24(.000)***	1

\* $p<0.05$ , \*\* $p<0.01$ , \*\*\* $p<0.001$

### 3.4 대상자의 스트레스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격대학 RN-BSN과정 간호사의 스트레스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 중 스트레스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혼유무와 업무 부담,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등 4개 변수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유형 중 교수관계를 제외하고 상관성이 확인된 이성(배우자) 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경제문제, 장래문제, 학업문제, 가치관문제 등 7개 하부유

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결혼유무는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Pearson 상관관계분석에서 상관성이 확인된 업무부담 정도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는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회귀분석의 가정에 대한 분석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검정에서 Durbin-Watson은 2.13으로 나와 자기상관이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62~.97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3~1.62, 상태지수가 1.00~16.13으로 현저하게 크지 않아( $<30$ ) 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모형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결과, RN-BSN과정 간호사의 스트레스반응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44.40$ ,  $p<.001$ ), 지각된 건강상태, 업무부담,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일상생활스트레스 유형 중 가치관 문제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스트레스반응의 총 변량을 44.2% 설명하였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Stress Responses (N=229)

Variables	B	$\beta$	t	F	$\Delta R^2$	$R^2$
Intercept	32.14		3.84 (.000)***			
Value problem	3.52	.38	7.23 (.000)***		.274	
Perceived health status	-11.35	-.30	-5.61 (.000)***	44.40 (.000)***	.124	.442
Workload	6.21	.16	3.12 (.000)***		.032	
Occupation satisfaction	-3.80	-.12	-2.27 (.000)***		.013	

\*\*\* $p<0.001$

## 4. 논의

본 연구는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인 간호사의 지각된 스트레스요인, 스트레스반응과 자기효능감 특성과 그 상관성을 파악하여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업 지연과 중단을 경감시키고 성공적인 학업완수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특히 원격대학 RN-BSN 학위과정의 직업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이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스트레스 관리방안과 학업완수에 유용한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개념적 틀 측면을 보면, 지금까지 스트레스 개념의 주요 축을 이루는 Selye의 개념을 기초 [22]로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는 관점과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을 반영하여 스트레스요인으로 개인의 지각된 일상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였고, 더불어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비특이적 반응으로 측정함으로써 스트레스요인과 반응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반응과의 관계에서 교수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 하부요인이 스트레스반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3]의 연구나 여자 대학원생 대상의 Kim[24]의 연구와 유사하게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반응 또한 높았다. 그러나 Park[23]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일상생활스트레스 요인 중 교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교수와의 관계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가장 낮고 스트레스반응과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교수와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접촉이나 만남이 적은 원격교육 성인 학습자라는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스트레스의 하부영역별로는 당면과제 영역의 스트레스가 대인관계 영역의 스트레스보다 약 1.75배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당면과제 영역 중에서 학업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가치관문제, 장애문제, 경제문제 순이었던 바, 이들 당면과제 영역의 모든 하부 유형에 대한 스트레스정도는 대인관계 영역에서 가장 높았던 가족관계 스트레스 수준 보다 더 높은 것이었다. 이는 Park[23]의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의 당면과제 영역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대인관계 영역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또한 국내 RN-BSN 과정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학업스트레스, 직장스트레스, 가정스트레스 순으로 높았던 Kim과 Xu[6]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이성이나 친구 등과의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 보다는 직업을 가지고 학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업 수행이나, 장애문제,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erido, Almeida와 Wethington[25]에 따르면, 만성적인 역할관련 스트레스요인에서 주요 생활사건 보다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스트레스의 유형과 빈도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즉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일상생활스트레스라고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만성적 스트레스일 경우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대상자들의 학업수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일상생활스트레스 관리에서 학업문제, 가치관문제 등 당면과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과 함께,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나 가족지지에 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낮았으며, 또한 이성관계, 교수관계, 경제문제를 제외한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모든 하부유형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반응 정도가 높았다. 이는 간호사의 효능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낮다고 보고한 Greenglass, Burke와 Moore[2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로서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향상은 스트레스반응을 경감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방안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서[14]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생들보다 더 쉽게 참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며, 더 오래 계속하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적게 보이며,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그들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경감시킴으로써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27]. 또한 Zimmerman[14]은 자기효능감이 교육에서의 변화들에 반응적이며 학생의 학업능력 활용과 성장에 인과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간호교육자들은 이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이 학생들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동기와 학습을 강화하고, 학

업중단이나 지연 감소, 학업완수 증가와 같은 학업 성과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Bandura[16]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직접적인 성공 경험과 타인의 성공에 대한 관찰이나 격려, 언어적 설득 등을 통하여 주로 형성된다. 따라서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를 낮추고 지속적인 학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즉 대상자의 역량에 적합한 과제 개발과 적절한 과제부여, 학업수행 및 자기역량강화에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기,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단기적 목표 설정하기, 직접적인 언어적 격려, 빈도와 즉각성이 고려된 교육적 피드백, 같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선배들의 사례 제시, 학업성취와 직무와의 관련성 향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반응의 하부 영역별로는 피로가 가장 높았고 좌절, 분노, 긴장 순으로 나타났던 바, 선행 연구[28]에 따르면 피로감은 우울증 초기부터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업병행 간호사의 피로를 일상적인 것으로 당연시 하지 않고 중요한 스트레스의 증상 및 증후를 나타내는 요인이며, 나아가서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증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im과 Park[14]은 대상 간호사의 거의 대부분이 잠재적 스트레스군이거나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분류되어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중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Park[23]은 신체적 증상관리와 적절한 분노표현은 향후 여성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좌절, 분노, 긴장 등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리는 RN-BSN 간호사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학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질 높은 학업적 성취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원격대학 등 차원에서의 지원 및 관리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히 20대 간호사, 미혼자와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업무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높았음을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이 같은 특성을 보

이는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를 표적 집단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관심과 중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격교육기관에서 매체강의는 원격교육의 중추적 핵심 영역이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서 매체강의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모색과 함께, 이들 대상자, 즉 경력이 짧고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 하면서도 학업을 병행하고 하는 20대 간호사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우수한 교육콘텐츠 개발, 효율적인 학습지원 방안 등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요인 중 가치관문제, 지각된 건강상태, 업무부담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4.2%이었다. 이는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결과[25,29]와 유사한 것으로,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업무부담과 직업만족도 등 직업 관련 특성과 함께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높은 교육수준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기효능감, 직업에 대한 만족, 환자결과 등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된다[7,8,9,30]. 이를 고려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측면에서도 환자안전과 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간호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업지연이나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 교육기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원격 교육 등 계속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승진기회 및 경력개발 기회 향상, 학업기간 중 업무부담 경감, 학습관련 일정의 편의제공 등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이나 기관 차원에서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적,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원들은 간호사들의 자기효능감 향상,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반응의 완화, 건강수준의 향상, 성공적인 학업완수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결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국립원격대학의 일부 지역 대학 출석 수업에 참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 대상자의 선택편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의 성인학습자인 RN-BSN 학위과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반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일상생활스트레스는 학업스트레스, 가치관문제, 장애문제, 경제문제와 같은 당면과제 영역이 대인관계영역보다 스트레스정도가 높았고, 당면과제 영역에서는 학업문제,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가 각각 가장 높았다. 또한 일상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반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지각된 건강상태, 업무부담, 직업에 대한 만족과 일상생활스트레스 유형 중 가치관문제가 스트레스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한다. 우선 간호교육자들은 직업을 가지며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속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일상생활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원격교육기관 측면에서는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습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을 위한 스트레스관리에 대한 콘텐츠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소속된 병원이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학업 완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간호사들이 재직하고 있는 소속 병원이나 기관에서는 간호사의 학업수준향상이 간호사 자신의 경력개발 뿐 아니라 환자의 성과향상에도 기여함을 인식하고 경제적, 행정적, 정책적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들을 실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원격대학의 학업병행 간호사를 위한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1] Y. I. Kim, J. H. Kim, C. H. Lee, "Job stress-related

factors of open university distant education students with having job. *Journal of Lifelong Society*", Vol. 7, No. 2, pp. 157-174, 2011.

- [2] Institute of Medicine(US), "The future of nursing: Leading change, advancing health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dx.doi.org/10.1016/j.jjapan.2011.02.002> (October 14, 2014)
- [3] Scrubs editor, Scrubs : 12 biggest reasons nurses get a BSN, May 18, 2015, <http://scrubsmag.com/12-biggest-reasons-nurses-get-a-bsn/>, cited by Sep 01, 2015.
- [4] H. J. Lim, 'unification of nursing education system as a four-year-course college, May 02, 2011, <http://www.emedinews.co.kr/news/view.html?smode=&skey=2%2C+3%2C+4%B3%E2+%BA%D0%B8%AE%B5%C6%B4%F8&section=1&category=81&no=8452>, cited by Sep 01, 2015.
- [5] T. K. Altmann, "Registered nurses returning to school for a bachelors degree in nursing: Issues emerging from a meta-analysis of the research. *Contemporary Nurse*", Vol. 39, No .2, pp. 256-272, 2011.
- [6] T. S. Kim, L. J. Xu, "Relationship of interrole conflict and role-related stress among registered nurses pursuing advanced nursing degre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8, No. 1, pp. 5-12, 2012.
- [7] J. Choi, H. J. Park,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in schoolwork.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5, No. 1, pp. 37-44, 2009.
- [8] M. T. Duffy, M. A. Friesen, K. G. Speroni, D. Swengros, L. A. Shanks, P. A. Waiter, M. J. Sheridan, "BSN completion barriers, challenges, incentives, and strategies.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44, No. 4, pp. 232-236, 2014.
- [9] P. R. Zuzelo, "Describing the RN-BSN learner perspective: Concerns, priorities, and practice influence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17, No. 1, pp. 55-65, 2001.

- [10] S. D. Nam, "A study on school drop-out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student and analysis of group type: Statistics Analysis Report, Unpublished manuscript.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5.
- [11] A. R. Kang, "Nurses' turn over rate 16.9%, New Nurses' 31% left. Hospital Nurses Association 'The smaller hospital is, the higher turnover is', Seoul: DailyMedi", <http://www.dailymedi.co.kr/news/view.html?searchsmode=&skey=%C0%CC%C1%F7%B7%FC&skind=both&stern=uset&ssdate=2014-01-01&sedate=2014-04-02&section=1&category=132&nno=777265> korean. cited by Oct 4, 2014.
- [12] P. A. Ratner, R. Sawatzky, "Health status, preventive behaviour and risk factors among female nurses. Components of Statistics Canada Catalogue", Vol. 20, No. 3, pp. 1-10, 2009.
- [13] A. DeLongis, S. Folkman, R. S. Lazarus,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No. 3, pp. 486-495, 1988.
- [14] J. H. Kim, Y. S. Park,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self-efficacy on psychosocial stress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1, pp. 111-121, 2015.
- [15] A. Bandura, "Exercise of personal and collective efficiency in changing societies. Countytow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16] B. J. Zimmerman,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1, pp. 82-91, 2000.
- [17] K. H. Kim, K. K. Chon,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 316-335, 2000.
- [18] K. M. Yang,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owerment, the job-relat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work performance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5, No. 1, pp. 39-61, 1999.
- [19] M. Sherer, C. H. Adams,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Vol. 53, No. 3, pp. 899-902, 1983.
- [20] H. K. Shi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ew staff nurses and its related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4.
- [21] K. B. Koh, J. K. Park, C. H. Kim, "Development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9, No. 4, pp. 707-719, 2000.
- [22] L. Filaretova, "Stress in physiological studies. Neuroscience and Behavioral Physiology", Vol. 42, No. 2, pp. 193-199, 2012.
- [23] Y. S. Park, "Gender differences of perceived stress type, stress response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and vulnerability of personalit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118-128, 2014.
- [24] S. S. Kim, "Stress and stress response of female 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2001.
- [25] J. Serido, D. M. Almeida, E. Wethington, "Chronic stressors and daily hassles: Unique and interactive relationship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45, No. 1, pp. 17-33, 2004.
- [26] E. R. Greenglass, R. J. Burke, K. A. Moore, "Reactions to increased workload: Effects on professional efficacy of nurses. Applied Psychology", Vol. 52, No. 4, pp. 580-597, 2003.
- [27]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Choice Reviews Online", Vol. 35, No. 3, pp. 35-1826, 1997.
- [28] S. M. Chang, J. H. Sohn, J. Y. Lee, J. H. Choi, S. J. Cho, H. J. Jeon, B. J. Hahm, D. H. Lee, M. J. Cho, "Characteristics of diagnostic criteria for depress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6, No. 5, pp. 447-452, 2007.
- [29] J. G. Grzywacz, D. M. Almeida, S. D. Neupert, S. L. Ettner,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A

micro-level analysis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to daily stresso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45, No. 1, pp. 1-16, 2004.

- [30] M. A. Blegen, C. J. Goode, S. H. Park, T. Vaughn, J. Spetz, "Baccalaureate education in nursing and patient outcomes.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43, No. 2, pp. 89-94, 2013.

#### 박 영 숙(Park, Young Suk)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증진, 정신신체 간호
- E-Mail : anywayyoung@knou.ac.kr

#### 김 정 희(Kim, Jeong-Hee)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0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직무스트레스, 간호조직 행동
- E-Mail : snukjh@jejunu.ac.kr